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관리팀 / 서선웅 과장

안전관리자에게 바란다

불철주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일선의 산업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분들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회사는 기계기구 제조업종으로서 과거에는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서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매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은 감퇴 되었으며, 이와함께 노·사 갈등도 심화되었고 사고가 가져다 주는 직·간접적인 손실은 회사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후 92년도부터 시행된 라인-스텝형 관리 제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책임과 자율적인 관리체계로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노·사가 함께 협력적으로 시행한 재해예방 활동은 산재예방 활동의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된다.

과거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사고예방 활동에 그저 방관만 하던 자세에서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자율적인 관리를 추구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법적인 안전조치 사항의 추진도 상호 협의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인 추진으로 안전활동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회사의 안전관리의 역할과 활동은 상당히 크다. 그 활동의 결과로 지속적인 재해감소를 이루었고 95년에는 전국 사업장 안전관리성공사례 발표대회에서 노·사 협력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강조하면서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초로 지난 7월에는 무재해 1배 달성을 이루었고, 2배 달성목표에 현재 91%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은 매월 4일 노사 합동안전점검, 노사 합동 안전강조캠페인, 잠재위험발굴활동, 노사 안전보건협의회, 라인 중심의 매주 월요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각종 안전보건 강조행사 등이다. 이런 활동들은 노사 책임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와 직원들이 적극적인 안전의식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활동들이다.

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안전의식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발전을 위하여 당부 드리고 싶은 글이 있다.

첫째 산업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의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필요하다. 알아야 안전보건관리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각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와 직원들이 못하는 점들을 챙겨주고 각종 안전보건활동이 고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해주고 함께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저 따라만 가거나 바라만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활동은 안일한 자세이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특히 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행 기준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사항들을 습득하여 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지도하고 알려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두번째 합리적인 자세와 직원들에게 모범적인 자세로서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직원을 안전의식화 습관화 되도록 하며, 관리감독자들을 이해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권위적이며 불손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노·사 중재자로서 합리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자세로서 직원들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정착을 위해서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이해, 협조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꼭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안전보건활동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해선 절대로 안된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협의적인 관계로서 진실된 인간존중의 이념에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로부터 동료들 지켜주는 파수꾼임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어야 한다. 산업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유해·위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자부하고 충실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사 상호 신뢰감을 갖도록 중재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산업평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 주길 당부한다.

넷째 안전은 인간존중의 이념에서 시작되며 한사람의 불행은 회사 전 직원의 불행이라는 생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로 인해 그동안 쌓은 회사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은 노사의 구별없이 일체감을 가지고 한사람의 이탈없이 전직원이 참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서는 안전은 제일로 우선하여야 한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활기찬 직장의 분위기는 산업재해 없는 무재해의 일터에서 그리고 노·사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전국 사업장의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을 기대한다. 